

용산선고가화반대및마포구간완전지하화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2. 12. 16

발 의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제안경위

- 2002. 12. 16.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위원회에서 이종일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용산선고가화반대및마포구간완전지하화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함.

2. 주문

- 화물수송과 수도권지역간의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용산선, 인천국제공항철도(2단계), 경의선(용산~가좌) 공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 우리 40여만 마포구민은 화물수송전용인 용산선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간 공간적으로 남·북으로 갈리는 불이익을 받아왔고 또한 주요간선로 횡단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피해를 받아온 바 있음
- 용산선 고가화계획은 개발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침해는 물론 소음공해와 분진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마포구민에게 보상은 커녕 또다른 고통을 주는 실망스러운 발상으로 청계천고가도로도 철거하여 친환경적인 도심조성을 하는 서울시계획에도 반하므로 절대 반대함.
- 용산선 마포지역 통과노선은 지하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용산선을 폐지하고 현 경의선 구간에 용산선 기능이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는 동시에 용산선 지상철도부지에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하고
-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경의선 구간중 지상화로 계획되어 있는 연남동 일부 구간은 완전히 지하로 설치해 주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함.

3. 제안이유

- 철도청과 인천국제공항철도(주)주관으로 2002.10.28.과 2002.11.8.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인천국제공항철도(2단계)와 경의선(용산~가좌)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그 설명회 내용에 대한 마포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 용산선은 14미터 고가화와 방음벽설치가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그간 수십년간 수많은 고통을 묵묵히 참아온 마포구민에게 또다시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이므로 마포구민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용산선 14미터 고가화와 양옆의 방음벽설치는 지상에서 열차가 운행될 때보다 진동에 의한 소음 공해 피해가 오히려 확산될 것이고 하루종일 햇빛을 한번도 볼 수 없는 수많은 가구가 발생하며, 조망권마저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용산선 마포지역 통과구간은 반드시 완전 지하화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만약 화물전용선이라는 이유로 지하화가 곤란하다면 기존 용산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현 경의선구간에 용산선 기능이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야 하고 용산선 철도부지에는 하루 20만대 이상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개성공단 및 수도권 북부지역과의 교통망 연계로 경제적 가치상승과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여야 함.
- 또한 인천국제공항철도, 경의선복선화 공사중 연남동 일부구간 지상화 계획에 대해서는 가좌역까지 선로를 지하화하여 연남동 인근주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받아온 소음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4. 참고사항 : 없음

따로붙임 용산선고가화반대및마포구간완전지하화촉구건의문

용산선고가화반대및마포구간원전지하화축구건의(안)

- 화물수송과 수도권 지역간의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용산선, 인천국제공항철도(2단계) 및 경의선(용산~가좌) 공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 우리 40여만 마포구민은 지난 70년동안 화물수송 전용인 용산선이 마포중심부를 동·서로 통과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남·북으로 갈리는 불이익을 받아왔고, 또한 양화로 등 주요간선로를 횡단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바 있고, 특히 용산선주변 인근주민은 개발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소음공해와 분진 등으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용산선을 비롯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경의선 공사계획 수립시 마포구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그간의 고통을 감싸주어야 한다.
- 철도청과 인천국제공항철도(주)주관으로 2002.10.28.과 2002.11.8.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인천국제공항철도(2단계)와 경의선(용산~가좌)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그 설명회 내용에 대한 마포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 용산선은 14미터 고가화와 방음벽설치가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그간 수십년간 수많은 고통을 묵묵히 참아온 마포구민에게 또다시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이므로 마포구민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용산선 14미터 고가화와 양옆의 방음벽설치는 지상에서 열차가 운행될 때보다 진동에 의한 소음

공해 피해가 오히려 확산될 것이고 하루종일 햇빛을 한번도 볼 수 없는 수많은 가구가 발생하며, 조망권마저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용산선 마포지역 통과구간은 반드시 완전 지하화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만약 화물전용선이라는 이유로 지하화가 곤란하다면 기존 용산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현 경의선구간에 용산선 기능이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용산선 지상철도부지에는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시 하루 20만대 이상의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고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개성공단 및 수도권 북부지역과의 교통망 연계로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또한 인천국제공항철도, 경의선복선화 공사중 연남동 일부구간 지상화 계획에 대해서는 가좌역까지 선로를 지하화하여 연남동 인근주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받아온 소음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세계적인 명소 서울월드컵경기장과 대규모 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이 있는 우리 마포구는 21C 세계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집적지인 상암 새천년신도시(DMC) 조성으로 디지털 미디어 특화단지이자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 2,100만 수도권의 관문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심 조성을 위해 청계천 고가도로를 비롯한 기타 고가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대역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후대에 도시의 흉물로 자리매김할 콘크리트 구조물인 용산선 고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마포구민의 대표기관인 마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

건의사항

1. 용산선 마포지역 통과노선은 지하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용산선은 폐지하고 현 경의선 구간에 용산선 기능이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는 동시에 용산선 지상철도부지에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경의선 구간중 지상화로 계획되어 있는 연남동 일부 구간은 완전히 지하로 설치해야 한다.